

결혼이주여성 대상 수필교육을 통한 내면화 사례연구

남 정 연* · 박 철 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가치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필 쓰기 교육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작 수필 텍스트를 개작과정을 거쳐 활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 다섯 명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및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틀은 글래스볼과 블룸의 가치, 태도, 흥미로 나타나는 내면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힘들었던 이주 초기에 비해 지금의 삶에 감사를 느꼈고, 자녀교육을 위해 수필 쓰기 및 써보기에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필교육의 효용성을 깨닫는 결과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배우는 한국어 교재에는 수필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으며, 이는 수필교육에 대한 가치로 귀결됐다. 각자의 이력과 학력에서 비롯된 수필 이해도는 달랐지만, 수필 읽기를 통해 지난날을 회상하며 경험을 재생산해내는 태도로 나타났다. 흥미는 글을 쓰고 싶은 욕구로 나타났다. 즉 일기 쓰기와 모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이후 여행기를 쓰고 싶은 욕구를 드러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현장 수필교육을 통해 수필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배우는 교재에는 수필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작품이 수록되기를 제언했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수필, 쓰기 교육, 내면화, 사례연구

I. 서론

결혼이주여성은 1990년 초부터 한국사회에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및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탈북주민의 이주 등이 국제결혼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김철희, 2017: 432).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가능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희망하고 한국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투고일 : 2021년 11월 15일, 심사일 : 2021년 11월 23일~2021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15일
본 논문은 2019. 7월 남정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했음을 밝힙니다.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안양대학교 교수, cwpa@anyang.ac.kr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한다(김영순, 2020). 이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화를 알아가고 체득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혼이민자라는 상황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들이 느끼는 삶의 행복감과 삶의 질은 높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방법으로 문학적 연관성을 찾고자 하며, 문학 장르 중에서 접근하기 쉬운 수필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서를 표출하는 내면화 단계에 이르려면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에서 벗어난 중급수준¹⁾ 이상의 단계는 되어야 한다. 외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연구한 윤여탁(2003)은 미국의 ESL 과정을 예시를 들어 문학교육에서의 내면화를 설명했다. 즉, ESL 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습자는 문법 중심인 ‘언어’를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문학’을 교수-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문학’의 교수-학습은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토론이나 글쓰기와 같은 언어 활동을 하거나, 문학의 속성에 대한 학습 활동, 작품의 주제나 등장인물에 대한 비평 활동, 학습자의 체험과 결부시키는 내면화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문학활동을 하게 된다(윤여탁, 2003: 134). 이를 미루어 보건대 중급학습자가 문학을 통해 내면화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한국어 교육을 받는 장소를 분석한 홍훈아(2013: 26)에 근거하여 S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3, 4, 5>²⁾와 지역단체인 S시 외국인복지센터³⁾에서 사용하는 <열린한국어 중급 1, 2, 3>⁴⁾ ‘읽기’ 위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3, 4, 5>에서는 수필을 포함한 문학적 텍스트가 거의 없었다. 문학 텍스트는 동화 ‘젊어지는 샘물’이 유일했다. <열린한국어 1, 2, 3> 역시 문학작품은 미미하였고 수필은 단 한 편도 없었다.⁵⁾ 즉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표현과 내면화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를 위한 문학 장르가

- 1) 여성결혼이민자의 중급 학습자는 토픽(topik)을 기준으로 3급과 4급으로 설정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 3-4급이면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를 의미한다. 중급 수준이면 한국사회에서 언어와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상태이다(조윤경, 2014: 142).
- 2)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였고, 1-6권까지 구성되었다. 1-2는 초급, 3-4는 중급, 5-6은 고급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중급수준 이상이 그 대상이므로 3-5까지 교재 분석하였다.
- 3)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S중앙복지재단이 S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4) <열린한국어>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후원하는 국제교류자원봉사의 한국어교실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한국어 교육의 단계에 맞춰 초급과 중급의 고빈도 문법을 엄선하고 영역별 언어 기능을 보강하여 수정·편집한 것이다.
- 5) 윤여탁(2002: 137-138)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정전의 선정은 절실하며, 작품 선정 기준으로 학

없음을 알 수 있다. 모국을 떠나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많은 회로애락을 겪는다. 이를 드러내고 내면을 안정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삶의 가치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필 읽기 교육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선행연구는 다양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교육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는 데 의심할 나위 없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원순옥, 2015: 113).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용어 그 이상을 한국어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윤민주(2017)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을 1-4단계까지 실시한다. 4단계를 마친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다양한 어휘와 문법 그리고 쓰기 영역에 학습욕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고급 단계를 포함한 다양한 문해교육 과정과 자녀교육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윤민주, 2017: 47-48).

문학교육을 통한 의사소통의 배양 능력을 주장한 선행연구는 윤여탁(2013)과 신윤경(2007)이 대표적이다. 문학교육은 언어의 사회 문화적 이해를 넘어 언어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등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윤여탁, 2013: 157; 신윤경, 2007: 460). 안선희(2016)은 중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필을 활용한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필이 다른 문학 장르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수필을 감상할 수 있는 단계적 교수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뒀다. 즉 언어, 문화, 문학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 방법이며,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장영희의 「괜찮아」와 정호승의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지금 항상 생각하라」의 두 작품을 선정하여 읽기의 3단계를 통한 쓰기활동까지 제시하고 있다. 다만 쓰기활동은 수업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주 목표가 “읽기”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들과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반응을 분석한 김정원 외(2009)는 한국어 배우는 것을 다른 성인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가 있는 맥락에서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다 재미있는 방법으로 학습하기를 원하였다고 밝히고

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또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 한국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문학 갈래로 현대 수필, 현대 소설, 현대 시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지만, 연구자가 분석한 교재에는 수필이 한 편도 없었다.

있다. 즉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그들의 실제 생활과 연결하여 더욱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교수학습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감성 이해와 표현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 현대 시 수업을 설계 및 활용한 이정엽(2011)이 있다. 이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기능 위주의 언어학적 학습에서 문학을 비롯한 다차원적 학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그들의 자녀교육을 꼽았다. 한국 학제로 들어와 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접하게 될 자녀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문학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의사소통 배양과 함께 문학적 카타르시스 즉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문학 장르 중에서도 수필 텍스트를 선택한 것은 그 소재가 신변잡기적이므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수필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면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수필교육

수필은 그 형식이 시나 소설과 달리 어렵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문학 장르이다. 일기나 편지 그리고 기행문 등 누구나 일생 동안 단 한 번 정도는 써봤을 법한, 대하기에 부담 없는 문학 장르이다. 시는 고도의 응축미를 지향한다. 언어의 나열이 아닌 주제와 소재가 잘 맞물려 응집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 작품을 파악하며 주제를 알아갈 때는 묘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 독자는 읽기 힘든 텍스트일 뿐이다. 분량이 긴 소설 역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학 장르와 달리 수필은 길이든, 문학적 구성요소든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창작과 감상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오정훈, 2014: 148).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에서 수필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에 있어 자유로움이다. 자국에서 일기나 편지, 기행문 등을 접해본 학습자

들은 수필이라는 장르를 모를 뿐 그 형식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다. 따라서 어려운 문학적 형식이 필요 없는 수필은(안선희, 2016: 17) 문학적 감수성과 미학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을 지향하기에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문학의 하위 갈래로 다가갈 수 있다(오정훈, 2014: 148).

둘째, 언어적으로 쉬운 난이도다. 일반적으로 수필의 제재는 일상생활의 재재인 작가의 신변잡기적 경험이 많다. 따라서 수필에 나오는 어휘 또한 일상용어로 비교적 친숙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김태길(1991)은 이에 대해 “문학적 표현 양식은 물론 비문학이 추구하는 직접적인 언술도 병행하는 문체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 또는 학습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분량의 단편성이다. 분량이 짧은 문학 장르로는 시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앞서 밝혔듯이 시는 그 형식과 언어의 난이도에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문학 장르이다. 언어적 난이도뿐 아니라 길이가 짧은 수필은(안선희, 2016: 14) 학습자들이 읽고 감상하는 데에 부담감이 적다.

넷째, 보편성이다. 수필의 제재는 일상생활을 겪으며, 작가의 현실적 삶을 기반으로(오정훈, 2014: 146)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소재로 삼는다. 그런 만큼 수필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문학 장르이다. 보편성은 학습자와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다(안선희, 2016: 18). 공감대 형성으로 학습자는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대할 수 있으며 교수-학습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섯째, 문학적 감수성이다. 수필은 작가의 문학적 소양이나 개성적인 문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문학적 표현이 가능하다. 언어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더욱 실감나게 하는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는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 그리고 감동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게 한다(오정훈, 2014: 147).

여섯째, 깨달음과 가치 추구로 인한 자신의 내면화이다. 수필은 작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제재로 한다. 그 삶 속에서 발견한 깨달음과 가치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낸다(오정훈, 2014: 146). 즉 학습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를 통해 가치의 내면화에 도움이 되는 문학 갈래가 될 수 있다(오정훈, 2014: 148). 따라서 수필은 삶의 다양한 가치,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성기조, 1994).

이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수필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수필교육의 장점 또는 학습효과를 알아보겠다.

수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이점을 밝힌 최희명(2011)은 앞서 제시한 수필의 필요성과 중복된 부분이 여럿 있다. 그만큼 한국어교육에서 수필교육은 꼭 필요하며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수필교육이 시나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수필교육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수필교육의 장점을 말한 최희명(2011)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자의 배려와 학습효과를 기대한 부분이다. 즉 ‘평범한 사물이나 일상의 소소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를 마련’ 함으로써 수필이 어려운 문학 장르가 아님을 학습자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다. ‘붓 가는 대로 쓰는 것’ 이 수필이라고 하지만 수필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정진권, 1993). ‘대상의 발견, 의미부여, 유기적 표현의 과정’ 으로 진행되는 짜임새 있는 구조이다. 학습자들은 읽기를 통해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고 익숙해지면서 이후 말하기 · 쓰기 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다(최희명, 2011: 15). 또한 문화적인 측면이 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문화학습에도 유용하는 등 학습효과에도 뛰어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학습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단체였는데 S시 소재 위의 두 곳⁶⁾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바 문학작품이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 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문학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한국어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중급 수준의 세 권 교재 중 문학작품은 ‘젊어지는 샘물’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에 수록) 이라는 동화 한 편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동화 전문이 아닌 짧게 요약된 글이었다. 지역의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재는 그나마 조금 나은 양상을 보였다. <열린한국어 중급 1>에 서양의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와 한국의 구두쇠 영감 ‘놀부’ 를 비교하는 글이 수록되었다. 각각 두 사람에게 이메일을 써보는 활동으로 마무리 되었다. <열린한국어 중급 3>에는 ‘우산’ 이라는 노랫말과 ‘겨울밤’ 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감상 후 노랫말이나 시를 써보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학교육을 받는 기회는 좀처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 벗어나 문학을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며 문학작품으로 읽고 쓰며 소통할 때 진정한 자아관이 형성된다(이산하, 2011: 11). 윤민주(2017: 12)는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말을 인용하여 문해교육의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⁷⁾ “읽고 쓰는 능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실존 세계와 관계없는 무생물인 - 문장들, 단어들, 음절들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태도요, 바로 자아의

6)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에서 언급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이다.

7) 윤민주(2017)은 결혼이주여성 학습자들과 문해교사들이 어떻게 문해교육을 인식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그러나 프레이리 말처럼 ‘자신의 상황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태도요, 바로 자아의 변혁’ 이 본고의 취지와 적합하여 인용하였다.

변혁인 것이다. 문학은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며, 수필은 더욱 기여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결혼을 통하여 낯선 나라로 와서 살게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면서 위로받길 원한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아관이 형성되어가는 내면화가 이루어진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자신의 내면화에 큰 도움이 되며 가치관 재정립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필은 삶의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된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편하다. 작품을 통해 교훈적인 가치관을 얻을 수 있고 학습자 자신의 의식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주민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윤민주, 2017: 2)이 읽고 쓰는 언어의 숙달을 넘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동참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당당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언어의 표현은 그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윤민주, 2017: 57). 그러므로 수필교육을 통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은 성인이다. 따라서 그들의 정서까지 아동 수준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양영희, 2013: 159). 언어능력과는 별개로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급수준의 결혼이주여성이 수필교육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본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타국에서의 결혼생활, 출산과 양육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내면화 단계에서 여러 갈래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2. 내면화

‘내면화’(internalization)라는 용어는 일상 또는 학문적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감안한 일반적인 의미 범주에서 내면화는 두루 이해되고 있다(성은혜, 2018). 내면화는 본래 글래스볼과 블룸(Krathwohl & Bloom)이 정의적 영역의 정신들을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육 목표 체계 개념이다(이대규, 1997). 정의적 영역의 학습목표 구조는 감수, 반응, 가치판단, 가치조직화, 인격화로 5개의 큰 개념으로 계열하고 있다. 글래스볼과 블룸은 그들의 정의적 학습목표 모형에서 특히 내면화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한다. 내면화는 정의적 학습목표 모형에서 각 목표개념들이 이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Krathwohl & Bloom, 1983: 34-44). 글래스볼과 블

롭음은 내면화를 현 사회의 가치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사회화보다 더 폭넓게 이해한다(Krathwohl & Bloom, 1983: 35). 그들은 내면화에 학습자의 성장을 의도하고 있다. 곳에 의하면, 성장은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할 때와 여러 태도, 신조, 원리 또는 별칙 등을 수용할 때 일어난다(Good, 1959: 296; Krathwohl & Bloom, 1983에서 재인용). 이러한 성장에는 내면화가 크게 작용한다. 내면화는 순종, 동일시, 내면화의 단계로 일어난다. 순종 수준은 초기 단계로서 학습자가 여러 기대에 대해 확신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따르는 수준이다. 중간 단계인 동일시는 학습자는 바라던 바대로 행동으로 반응하고, 이 반응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며 행동에 내포된 가치를 믿고 수용한다. 마지막 단계인 내면화 과정은 교육과정의 최종결과의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가치체계 속에 어떤 가치, 태도, 흥미 등을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것들을 통해 스스로를 지도 한다(Krathwohl & Bloom, 1983: 38-39).

이러한 내면화는 독자의 재구성 활동에 의해 일어나며, 인지, 정서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최인자(2019)는 주장하고 있다.⁸⁾ 내면화는 공간이나 물리적 이동이 아닌 개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 작용과 내면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성은혜, 2019). 천재교육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내면화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면화란 문학 작품을 읽고 알게 된 것과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문학 작품에 드러난 가치를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같은 내면화를 통해 독자는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심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으며, 윤리 의식을 키울 수 있게 되어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 작품에 담긴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성찰하고, 작품에 대한 비평적 글쓰기나 다른 독자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이를 내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⁹⁾ 이러한 내면화 개념과 특징을 미루어 볼 때, 본고에서 다루는 수필 텍스트의 취지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즉,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느끼는 일련의 감정들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감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정신적·심리적으로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무언가가 작용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힘’ 이고 ‘내면화’ 이다.

8) 최현섭 외(2000: 461~462) 『국어교육학 개론(제2판)』, 삼지원. 여기서 “내면화는 감동의 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감동 이후에 독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정신 작용으로 내용과 가치 요소를 학습자의 주관과 가치에 의해 재구성하여, 인격에 내면적으로 융해시키는 과정” 이라고 하였고, 박영목·한철우·윤희원(2003: 429) 『국어교육학 원론(제2판)』, 박이정. 여기서 “내면화란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한 것으로, 어떤 가치관이 암기된 지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감동되어 행동의 변화까지를 기대하는 상태” 라고 제시하고 있다.

9) 성은혜(2018: 197)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활용하였다. 사례라 함은 ‘경계 지어진 체계’ 또는 ‘연구의 대상’을 뜻하는 것이다.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례가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된 범위를 갖는,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를 연구하는 것이 사례연구이다(Stake, 1995). 이를테면 특정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 문화 사건 등의 대상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과 환경, 사건, 집단 등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상의 특징이나 문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 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조성남 외 2011: 181).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과 개별적 심층면담으로 진행된 개별(individual)사례연구이다.¹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수필 텍스트는 창작수필이며¹¹⁾, 문학 텍스트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전제한다¹²⁾. 창작수필은 관점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지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전문작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배제할 수 없지만, 등단 작가의 글이므로 문학 텍스트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창작 문학 텍스트는 학습자 자신도 쓸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텍스트를 정한 다음에는 학습자의 여러 변인¹³⁾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문을 개작했다. 숙달도에 따라 어휘와 표현을 수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강현화 외, 2016: 143).

본고에 사용된 수필 텍스트는 한상미(2018: 125) ‘한국어 강좌 개작 방법’에 기반하

10)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사회적 삶의 영역을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일 인터뷰인 경우는 길고 심도 있게 다루고, 다수의 인터뷰인 경우는 인터뷰 외에 현장노트, 저널이나 일기, 다른 형태의 보충자료가 필요하다(조성남 외 2011: 182-18).

11)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용 소논문화 한 것이므로 지면 할애 상 수필 전문(全文)을 실지 못했다.

12) 문학텍스트가 지녀야 할 네 가지 요소(심재휘, 2016: 104).

① 언어의 측면: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제의 측면: 한국인의 정신문화, 역사문화 등 다양한 문화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③ 감상의 측면: 정서적 공감, 느낌의 파악 등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 용이해야 한다.

④ 문학양식의 측면: 문체나 구조의 변화, 문학의식의 변화 등,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단계 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학습자 관련 요인은 교사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학습자의 나이, 학습자의 성격 및 성향, 학습자의 성별(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결혼이주민여성이라는 ‘여성’에 한정되었기에 제외될 수 있는 요인이나 일반적으로는 중요하게 적용되는 요인이다.), 숙달도 수준, 학습 목적,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있다(강현화 외, 2016: 239-240).

여 네 번의 개작 과정을 거쳤다. 먼저 어휘와 분량 위주로 ‘삭제 · 수정하기(deleting or omitting)’ 와 ‘수정하기(modifying)’ 그리고 ‘단순화하기(simplifying)’의 작업을 진행했다. 어휘는 고급 어휘를 중급에 해당하는 어휘로 교체했다. 이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교수학습센터> ‘어휘 내용 검색’ 을 활용했다. 다음으로 정치적 이슈를 다룬 단락은 전체 삭제했다. 글의 단순성으로 집중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는 수정 · 삭제된 글이 매끄럽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배열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흐름을 살펴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이 필요한 곳은 다시쓰기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개작하였지만 순서는 상관없다. 모든 개작 방법들이 전 방위적으로 활용될 때 오히려 글의 내용과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삭제 · 수정하기’ 의 적용

	개작 전	개작 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동반한다.” • “자의든 타의든 나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들에서의 일시적인 해방과, 해보지 않은 것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 “온 세상이 붉디붉어 마음이 저만치 허공에 띄워져 내려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실타래처럼 길게 늘어진 그리움들이 일상을 벗어나 어딘가로 가자고 부추긴다.” • “그곳은 언제 가도 좋다. 제주를 고향으로 둔 지인은 그랬다.” • “공항을 빠져나가 처음 맞이한 맑고 깨끗한 공기가 손끝을 훑고 반갑게 인사하며 지나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레면서도 두렵다.” • “일상을 벗어나 느끼는 자유와 혼자 여행을 해보지 않아 두렵기 때문이다.” • “가을 단풍으로 온 세상이 붉었다. 문득 일상을 벗어나 어딘가로 가고 싶다.” • “제주가 고향인 친구는 말했다.” • “공항을 빠져나가 처음 맞이한 맑고 깨끗한 공기에 기분이 좋다.”

<표 2> ‘삭제하기’의 적용

	개작 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락 전체가 삭제됨. <p>“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작은 시위가 있었다. 언제나 그래왔듯, 늘상 하는 의식처럼 시위는 소란스럽지 않고 마을의 한 부분을 자연스레 껴 맞추는, 하루를 채우는 통과 의례처럼 보였다. 피켓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얼굴에 분장을 한 사람들의 춤이 있었지만 통제하거나 해산을 목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공권력은 없었다. 다행이다. 저들 또한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어느 순간에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개입되지 않은 공권력에 여행자로서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했다. 길 위에 서서 그들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제주의 가을 햇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단락 내의 세 개의 문장이 삭제됨. <p>“과감히 떠나오지 않았다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현사 앞에 절로 감사가 나온다. 눈 감으면 제주항의 까만 바다가, 함덕의 옥빛 바다가, 하얀 포말이 아른거린다. 곧 다시금 오라고 귓속에 와 부러놓고 저만치 웃으며 달아나는 밀물과 썰물. 넓은 바다에서 매임 없이 살아가는 까닭에 그렇게 호탕한가보다.</p>

<표 3> ‘다시쓰기’의 적용

	개작 전	개작 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단 고향이 제주인 사람만 그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또는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도 제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이 제주인 사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도 제주를 좋아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도 수 십 번 변덕을 부린다는 한라산의 날씨가 그날은 ‘내내 어여쁘소서’였다. 한라산마저 나의 여행을 분명 열렬히 응원하고 반기는 것이리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는 한라산의 날씨가 종일 맑았다. 한라산도 나의 여행을 반겨주는 것이 분명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위 위에 붙은 보말을 잡고 더러는 외지인의 냄새가 나는지 손대기도 전에 붙어 있던 바위에서 떨어져 바닷물 속으로 스프르 미끄러져 간다. 눈으로 직접 보말을 보고 보말을 잡아본 것은 나의 혼자 여행처럼 처음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위 위에 붙은 보말을 잡는다. 직접 보말을 보고 보말을 잡아본 것은 나의 혼자 여행처럼 처음이다.”

〈표 4〉 ‘교체하기’의 적용

	개작 전	개작 후
내용	• ‘역광을’	• ‘햇빛을’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거주한 지 평균 10년 이상 된 토픽 중급 수준의 숙달도를 지녔다.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참여자 특성

번호	이름	나이	출신 국가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 기간	직업	가족 관계
1	참여자 A	38세	베트남	10년	S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2~3년	생산직 근무	남편, 딸(10), 딸(8)
2	참여자 B	34세	베트남	10년	A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2~3년	다문화 교육 강사	남편, 아들(9), 아들(7)
3	참여자 C	35세	베트남	9년	S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현재 진행 중 (주말)	생산직 근무	남편, 아들(8), 딸(6)
4	참여자 D	46세	필리핀	19년	S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1~2년	영어 강사 (초등학교, 유치원)	남편, 딸(19), 딸(18), 딸(17)
5	참여자 E	27세	몽골	4년	D대학교 한국어센터	4년	대학생	남편

연구참여자 A는 한국 거주 10년 된 여성이다. 센터에서의 한국어 교육 기간은 2-3년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지만,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중급학습자 수준에 준하였다.¹⁴⁾ 자신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세세한 이야기까지 조리 있게 전달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직장 동료들과 있었던 일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했다.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소재가 쉬우며 길이가 짧은 문학 작품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 하는 활동을 통해 중급 수준의 읽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의 학교에서 오는 알림장이나 각종 문서 등의 ‘비교, 대조, 나열 등이 사용된 설명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이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토픽 5급을, 연구참여자 C는 토픽 3급을 그리고 연구참여자 E는 토픽 4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대상 선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참여자 D의 경우 결혼 기간과 함께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19년이다.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방과 후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다. 따라서 각종 공문들을 접함으로써 문서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한국에서의 오랜 체류 기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점을 근거로 연구참여자에 포함하였다.¹⁵⁾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9. 3. - 2019. 6. 까지 약 4개월 동안 결혼이주여성 다섯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수필교육이 주는 효용성과 내면화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면담을 통한 라포형성, 교수학습,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했다. 면담의 질문 구성은 관련 논문을 참고하였고, 교수학습 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내용 이해를 도왔다. 연구참여자의 실제 경험에 연계되는 질문으로 확대함으로써 포화할 때까지의 자료수집을 했다.

교수학습은 개별학습을 실시했다. 각기 다른 한국어 수준과 배경을 지녔기 때문에 개별 수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참여자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므로 동일 시간대와 장소에서 수업은 어려웠다. 수업 장소는 때에 따라 연구자의 집과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학습 후 간단한 설문 양식을 통해 학습자들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면담 내용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먼저, 수집된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문장

14) 국립국어원(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등급별 말하기와 읽기 참조

15) 국립국어원(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등급별 말하기와 읽기 참조

으로 구성하고 이들 중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문장들을 발췌한 후, 줄 단위 분석을 통하여 구절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였다(윤현희, 2017). Glaser(1978)는 줄 단위의 코딩을 통해 좀 더 치밀하고 일반성이 높은 이론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Charmaz(2006)는 줄 단위 코딩이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천, 2017: 163).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 선정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성찰을 통해 도출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이 도출해 낸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여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김영천(2017: 165)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읽으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미는 무엇인가?’ (김영천, 2017: 187)에도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내재화 단계를 위한 수업 시 사용됐던 질문지를 기반으로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분석하며 연구참여자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며 사례 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재화 분석을 위해 글래스볼과 블룸의 정의적 영역을 참고하였고, 분류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글래스볼과 블룸의 교육적 목표의 정의적 영역 분류

영역	체계	정의
정의	수용	자극을 감지하고 집중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반응	자극에 관심의 수준을 넘어 능동적 행동을 보임
	가치화	특정의 가치를 진행하는 것
	조직화	각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구체화해 평가하며, 여러 가지 체계를 몇 가지 준거에 따라 분류
	성격화	가치가 일관성 있게 내면화 되는 것

수업 시 사용되었던 질문 내용은 <표 7>과 같다. 읽기 후 질문, 문화학습단계, 내재화 단계 등 질문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 간 분석도 실시하여 기술하였다. 수필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수업이 결혼이주여성에게 효용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다.

<표 7> 수업 시 활용된 질문 내용

	수업 시 사용된 질문 내용	연구참여자의 경험으로 확대
읽기후 질문	1. 작가가 혼자 여행을 하기로 결심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처음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
	2. 여행을 떠나기 전 작가의 마음과 여행지에서 느낀 작가 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처음 한국 왔을 때랑 지금과 비교
	3. 여러분이 혼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대화
문화 학습 단계	4. 여러분 나라에서는 시간이 날 때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하나요?	대화
내재화 단계	1. 여러분이 여행한 곳 중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나요? 그 곳은 어디 인가요? 꼭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돼요. 그 곳에서 좋은 추억들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볼까요	대화
	2. 인생에 관한 질문 ·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은 누가 있나요? ·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 어렸을 적 내게 특별했던 장소가 있나요?	
	3. 미래와 꿈에 관한 질문 ·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4. 일기, 편지를 써 본 적이 있나요?	

IV. 연구 결과

1. 사례 내 분석

1) 연구참여자 A: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아요

연구참여자 A는 한국에서 산 지 10년이 지났지만, 고급 어휘 사용 빈도는 낮았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원활하며, 짧은 텍스트를 읽고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수필 텍스트

를 읽은 연구참여자 A는, 이주 초창기 본인 모습이 생각났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국말을 할 수 없어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고 친구도 없어 점점 고립되었다.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점차 한국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낳으면서 조금씩 좋아졌다고 했다. 지금은 직장까지 다니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했음을 밝혔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말 몰라서 밖에 못 나가요. 음... 친구 없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집에만 있으라고 해요... 아기 낳고 밖에 못 나가니까 센터에서 사람 왔어요. 한국말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직장 다녀요.(웃음) 좋아요. 친구 있어요. 중국. 한국말 잘 못 해요. 내가 도와줘요.

(연구참여자A)

힘든 과정을 지나 현실의 감사와 소중함을 깨닫는 귀결점이 연구참여자 A에게 큰 공감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어가 서툰 중국 출신 직장 동료를 돕는다고 웃으며 자랑했다. 이주 초기의 힘든 삶과 비교했을 때, 직장을 다니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전했다.

2) 연구참여자 B: 한국남자랑 결혼하기 싫었어요

연구참여자 B는 연구자가 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강사로 근무했을 당시 만났으며 베트남 학생들을 위한 통역강사였다. 결혼이주 계기는 부모님의 국제결혼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이주였다. 부모님의 강요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깁스까지 하였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국어 기초교육을 받았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본국의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주로 자기소개와 인사,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짧은 의사 표현, 상대 남성에게 대한 호칭어 등 기초적인 생활 한국어를 듣고 따라 하기의 방식으로 가르친다(원순옥 외, 2015).

난 결혼하기 싫었어요. 엄마랑 맨날 싸웠어요. 도망 다니고 결혼 전에 남편 딱 두 번 보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시어머니랑 많이 싸웠어요. 같이 안 살았어요. 근데 가끔 오시면 남편 밥을 왜 이렇게 해주냐고, 애들 왜 이렇게 키우냐고 뭐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 안 해요.

(연구참여자 B)

한국어 숙달도 토픽5급인 연구참여자 B는 수필 텍스트 읽기를 어려워하지 않았다. 어휘뿐 아니라 문법도 익숙한 표현이 많다고 하였다. 잠자기 전 그날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내재화 단계’의 ‘우리나라(참여자 고향)의 소개해주고 싶은 여행지’에서는 베트남 다낭을 소개했다. 다낭은 근래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다. 유명관광지가 된 다낭을 다시 가게 된다면 여행문을 써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잠자기 전에 글 쓸 거예요. 인터넷 쇼핑물 하려고 생각 중인데 하나하나 써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베트남) 다낭 좋아요. 선생님. (안 가봤어요.) 다음에 꼭 한 번 가보세요. 다시 다낭 가면 꼭 여행일기 써보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B)

3) 연구참여자 C: 딸에게 책 읽어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C는 결혼한 지 9년 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다. 주말 동안 지역 센터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 수준이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어공부를 한다고 밝혔다. 연구참여자 C 역시 수필을 처음 접했다. 한국 문학 작품을 활용한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던 연구참여자 C는 수필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서 살며 느낀 점들을 쓰면 좋을 것 같다며 스스로 적용점을 찾았다. 내재화 단계에서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은 누가 있나요?’를 물었을 때 ‘딸’이라고 대답했다. 동화책 읽어줄 때 어려운 부분은 딸이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맨날 바빠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센터에서 한국어 배워요.
우리 딸 위해서요. 음.. 왜냐면 딸한테 동화책 많이 읽어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C)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 문학교육을 통해서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동기부여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결과가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요소도 의미가 있다 (조윤경, 2014: 142). 연구참여자 C 또한 수필교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음을 깨달았고, 이는 또 다른 문학 장르로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4) 연구참여자 D: 바쁜 삶에서 나를 찾고 싶어요

필리핀 출신의 연구참여자 D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가장 길지만 다른 연구참여자에 비해 한국어 숙달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므로 한국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 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연구참여자에 비해 숙달도가 낮을 뿐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했다. 읽고 내용 파악하기 단계를 어려워 했으나, 읽기 후의 내재화 단계에서는 참여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내재화 단계의 질문 중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물음에 수필의 내용처럼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다. 낯선 곳에서 바쁘게 살며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수필 텍스트를 읽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맨날 일 다녀요. 바빠요. 남편 아파요. 그래서 나 혼자 돈 벌어야 해요.
딸 세 명 있어요. 정신 없어요.
주말 되면 집안일 해요. 잘 못 쉬어요. 쉬고 싶어요.
혼자 쉬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D)

5) 연구참여자 E: 남편은 나의 은인이예요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 E는 연구자가 대학 부속기관의 한국어 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재직했을 시 만났던 학생이며, 당시 토픽 4급에 합격한 상태였다. 따라서 수필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휘나 문법 표현도 평이함을 드러냈다. 시, 소설을 포함한 에세이 형식의 글을 많이 접했으며, 이는 수필교육의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내재화 단계의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은 누가 있나요?’ 의 물음에는 남편을 꼽았다. 외롭고 힘든 한국생활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되어 그와 같은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어학당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힘들었어요. 그때 남편 만나서
많이 도움 됐어요. 내년엔 몽골 같이 가기로 했어요.
몽골 다녀와서 글 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의 평균 혼인 기간은 10.4년으로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비교적 길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며 가사를 돌보는 등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기 영역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필교육을 읽고 말하기 활동으로만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는 수필교육이 연구참여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아성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도록(내재화) 돕는 역할임을 방증한다. 나아가 문학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존감 회복에 기여를 하는 수필교육은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례 간 분석

1) 가치: 수필교육의 부재를 깨닫다

연구참여자 거의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사항은 수필교육의 부재였다는 것이다.

수필요? 처음 들어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알아요.

(연구참여자 A)

한국 센터에서 공부하면서 수필 몰라요. 딸한테 책 읽어주고 싶어요.
읽기 공부 잘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C)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참여자 D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연구참여자 E만 예외였다. 본 연구의 2장 2절에서 기술했듯이 수필교육은 여러 가지 장점 및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을 포함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수필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됐다.

2) 태도: 경험을 재생산하다

수업 시 사용됐던 질문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다. 즉 ‘작가가 혼자 여행을 하기로 결심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는 질문에 연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고향을 떠나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신분으로 타국에 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다.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한국에 오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글을 통해 자신들의 묵혀왔던 오래된 이야기를 풀어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외롭고 낯설고 힘든 경험을 이야

기할 때는 눈물을 흘렸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국말이 늘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좋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과 몸짓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국제결혼 하기 싫다고 도망다니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 입원해서
깁스했어요. 돈 없어서 병원비 내준다는 조건으로 한국남자랑 결혼했어요.
지금은 통역사랑 다문화 강사로 일해서 좋아요.

(연구참여자 B)

(처음 힘들었어요) 버스타고 회사 다녀요.(웃음) 지금 좋아요.

(연구참여자 A)

한국어 배우러 처음 한국 왔어요. 몽골 친구들 있었지만 외로웠어요. 그런데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은 좋아요. OO대학교도 들어갔어요.

(연구참여자 E)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오게 된 연구참여자 B는 초기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참견하여 많이 싸웠다. 그럴 때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어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돼서 좋다고 했다. 자녀들의 취학 후, 어학당 통역사를 하는 삶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보였다. 연구참여자 A는 모든 것이 낯설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는 생활의 만족감으로 연결됐다고 했다. 학문목적으로 한국에 온 연구참여자 E는 주위에 몽골 출신 친구들이 많았지만 힘들고 외롭기는 마찬가지였다. 남편을 만나면서 안정을 되찾고 한국 대학교에까지 입학했다.

수필을 읽고 텍스트의 내용에 빗대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연구참여자들은 그 자체로도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고, 어떻게 풀어낼지 몰랐던 삶을 수필을 근거로 풀어낼 수 있어서 힐링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이야기를 읽는 행위는 그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리콤프는 삼중의 미메시스를 통해 말한다.¹⁶⁾ 이런

16) 삼중의 미메시스는 리콤프의 해석학에서 가장 독창적인 발상이라고 평가받는다. 미메시스 I의 대상은 우리가 겪는 파편적 행동들, 쉽게 말해 일상적 경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 경험에 대한 미메시스를 통해 행동의 구조 및 행동의 상징성을 파악한다. 미메시스 II는 실생활의 사건들, 행동의 계열체, 시간의 연대기적 차원을 각기 구조화된 스토리, 행동의 통합체, 시간의 비연대기적 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미메시스 III의 대상은 미메시스 II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연대기적인 이야기의 통합체', 한마디로 줄거리요 텍스트이다. 리콤프의 미메시스 여정은 독자에게서 완성된다고 했거니와, 독자는 줄거리를 읽고 이해한 것을 다시 자신의 삶에 도입한다(유기환, 2010: 386-388).

경험을 통해 독자가 된 연구참여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 해석함과 동시에 그것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며, 나아가 이야기를 읽는 주체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변광배, 2020: 147).

3) 흥미: 글을 쓰고 싶다

수필읽기 교육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읽기와 쓰기에 강한 동기부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도 자녀가 커감에 따라 읽고 쓰는 것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학령기 자녀들이 엄마의, 즉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보다 높다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베트남에서 공부할 때 일기 쓰는 거 했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안 써요.
아이들 크니까 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B)

딸한테 동화책 많이 읽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딸 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한국말 잘 써야 해요. 음...그래서... 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C)

남편이랑 내년에 몽골 가요. 선생님 수필처럼 몽골 여행기 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E)

난 한국말 아직 잘 못써요. 쓰는 거 어려워요.(웃음)
남편 많이 아파요. 슬퍼요. 이런 거 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B는 베트남에서 일기를 썼다고 한다. 일기도 넓은 의미에서 수필이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며 메모를 활용한 일기를 써보겠다고 했다. 베트남 여행지를 추천해달라는 연구자의 말에 다낭을 소개했다. 결혼 전에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곳이어서 다시 다낭을 가게 되면 꼭 여행후기를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참여자 중 한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살았던 연구참여자 D는 상대적으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았지만 쓰고 싶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남편은 간암 말기이며, 그런 남편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부인으로서 많이 힘들다고 했다. 오래전 고향인 필리핀을 떠나올 때 “한국 가서 잘 살아야지” 했던 생각들이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연구참여자 E는 몽골 초원과 양떼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다. 수필을 읽고 흥미

를 느껴 글을 쓰고 싶어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문학적 카타르시스를 겪었다고 판단한다.

3. 소결

다양한 이력과 학력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수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조금씩 달랐다. 예컨대 직장생활에서 큰 활력을 받는 연구참여자 A는 더 이상의 한국어교육 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접하기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됐다. 학령기에 접어든 딸을 위해 책 읽어주기를 원하는 연구참여자 C는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자녀교육을 우선시하는 연구참여자 C 경우 다양한 독서와 함께 수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기대한다. 다문화교육강사인 연구참여자 B, 영어강사인 연구참여자 D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직업군에 속하므로 다양한 텍스트를 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 역시 수필에 대한 이해도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인 연구참여자 E 역시 학문수행을 하는 만큼 수필의 이해와 적용이 빠르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이력과 학력을 가졌더라도 연구참여자들은 수필 교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내재화를 견고히 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표현과 내면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필 읽기 교육을 선택했으며, 그 내면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본연구는 글래스볼과 블룸의 내면화 과정에서 발현되는 가치, 태도, 흥미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수필교육에 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는 한국어 교재에는 수필 장르가 거의 없다. 이는 수필교육에 대한 가치발견이다. 둘째, 텍스트로 사용된 수필을 읽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경험의 재생산은 치유와 자아성찰을 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곧 태도이다. 중·고급 학습자들이 문학텍스트를 읽는 즐거움을 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생활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의 여러 학습자들끼리 감상의 소통을 나누면서 문학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안선희, 2016:2-3)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수필을 읽고 이후 비슷한 체험을

할 시 여행담을 쓰거나 일기 등 쓰기 활동과 연계하려는 강한 흥미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배우는 한국어 교재에 수필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작품이 수록되길 바란다.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의 본질은 변화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원순옥 외, 2015). 자아성찰과 내면화로 자아는 건강해진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실제 수필교육을 통해 수필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문학교육이 한국어교육에 효과적이고 한국어학습자에게 필요함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 현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재구성된 창작 수필텍스트를 통해 실제 현장 수업을 했고, 결혼이주여성의 내면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수필텍스트 선정에 있어 검증 절차가 누락 됐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문학단체 동인지에 수록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공공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필교육의 효과성을 다룬 후속 연구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현화 외(2016). **한국어 교원을 위한 한국어교육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미정 (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육. **한국어 교육 10(1)**. 1-28.
- 권성미 (2007). 한국어 읽기 교재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개발- 4급 읽기 교재의 구성 요건고찰을 통한 연구 -. **언어와 문화 3(1)**. 143-163.
- 국립국어원(2011).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3**.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국립국어원(2011).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4**.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국립국어원(2011).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5**.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국립국어원(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https://www.korean.go.kr> 에서 2021. 11. 16일 인출
- 김경순 (2010). 글래스볼과 블룸의 정의적 영역 학습목표 모형 비판. **조형교육 36**. 61-84
- 김승희 (2016). 한국어교사의 한국 문학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한민족문화연구 55**. 271-304.
- 김영순 외(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 (202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성남: 북코리아.
- 김정원 외 (2009).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서 표출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반응양상.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0(2)**. 73-103.
- 김철희 외(2017).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문화 경험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86**. 431-450.
- 김희경 (2010). **읽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교재 구성 방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나병철(1994). **문학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 박혜경 (2010).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구성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백미경 (2010).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창작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변광배 (2020). 리코르의 ‘삼중의 미메시스’와 신경숙의 「외딴 방」의 비밀. **人文學 研究 33**. 141-169.
- 변영계 (2005).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성은혜 (2018). 국어교육에서의 ‘내면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61. 175-205.
- 송선주 (2014). 시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1(0). 79-96
- 신윤경 (2008).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문학수업.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59-473.
- 심재휘 (2016). 한국어교육과 문학텍스트. **國語教育學研究** 51(3). 94-127.
- 안선희 (2016).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수필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양영희 (2013).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시론. **언어과학** 20(1). 139-163.
- 엄민서 (2019). **수필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오정미 (2008).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 선정에 관한 문제. **한말연구** (22). 221-250.
- 오정훈 (2014). 수필 교육을 위한 방법 연구. **중등교육연구** (26). 145-165.
- 원순옥 (2015). <특집> 한국사회 이주민의 생활세계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민족연구** (62). 93-119.
- 유기환 (2010). 미메시스에 대한 네 가지 시각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야민, 리쾨르. **세계문화비교연구** 33. 375-406.
- 윤민주 (2017).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윤여탁. (2003). 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14(1). 131-152.
- 윤여탁 (2013).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2). 149-176.
- 윤현희 (2017). **탈북학생 지도 경험에 나타나는 초등교사의 돌봄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이가원 (2014).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5). 379-415.
- 이기성 (2007). 한국어 문학교육의 방법론 탐색.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89-504.
- 이대규 (1997). 소설교육과 텍스트 내면화 - 「역마(驛馬)」와 관련지어. **현대문학이론연구**7(0). 91-121.
- 이산하 (2011).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한 한국어 문학교육 방안 연구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상일 (2012).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이은진 (2015).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은하 (2013). **문학과 상상력**. 동문사.
- 이정엽 (2011). 여성 결혼이민자의 감성 이해와 표현을 위한 한국 현대시 수업 모형 설계 연구. **우리말 글 (52)**. 131-151.
- 이정현 (2021).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과 예술 37**. 315-346.
- 정덕업 (2017). **대학축제의 체험요소가 대학생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정진권 (1993). **한국현대수필문학론**. 파주: 학연사.
- 조성남 외(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파주: 도서출판 그린.
- 조운경 (2014). 결혼 이민자를 위한 문학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연구 1**. 135-149.
- 최인자 (2019). 문학 독자의 내면변화를 촉진하는 마음기제로서의 ‘은유’와 독서 은유 스토리텔링 교육. **문학교육학 63**. 275-303.
- 최현욱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최희명 (2011). **수필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한국어교육열린연구회 저(2011). **열린한국어 중급1**.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한국어교육열린연구회 저(2011). **열린한국어 중급2**.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한국어교육열린연구회 저(2011). **열린한국어 중급3**.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한상미 (2018).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MOOCs)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작 원리 연구 - ‘Learn to Speak Korean 1’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8)**. 107-136.
- 홍훈아 (2013).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Krathwohl, David R.; Bloom, Benjamin S., (1983). **교육목표분류학 - 정의적 영역**. (임의도 외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 Mikhail Bakhtin (2006). **말의 미학**. (김희숙·박종소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 Jack C. Richards (2017). **언어 교육과정 개발 -이론과 실제-**. (강승혜 외 옮김). 한국문화사.

【Abstract】

**A Case Study on Internalization of Marriage Migration Women
based on Pedagogy using Essay Reading**

Jeong-Yeon Nam

(Inha University)

Chul-Woo Park

(Anyang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essay reading pedagogy as a method to fulfill life values and to enhance life quality of marriage migration women. To this en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internalization in mind which is expressed by Krathwohl and Bloom's values, attitudes and interests. A case study involving essay reading and in-depth interview with five marriage migration women revealed that although difficult at first, migration women are living with satisfaction, showing gratitude to their spouse, and challenging themselves to read and write essay fo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is was the result of realizing the 'value' of essay education usefulness. Nonetheless, none of the Korean textbooks available for marriage migrant women were found to contain essay within the content. Although the level of understanding essay varied based on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essay reading enabled migration women to reproduce the experience of reminiscing their past. Moreover, 'interest' appeared as a desire to write. Specifically,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desire to keep a diary and to write travel notes about their home country visits. It is expected that marriage migration women who go through internalization will lead their life gallantly as a member of the society.

Keywords: marriage migrant women, essay, reading education, internalization, case study